

사회

‘한 탕’ 늪에 빠진 광주

스크린경마장 복적, 5000석으로 늘리고 지정좌석제까지

불경기 속에 호남 유일의 마권 장 외발매소(스크린 경마장)인 한국마사회 프라자 광주지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매년 입장객과 수익이 늘어나자 한국마사회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대립테크노빌딩 건물을 모두 매입하고 지난해 리모델링을 거쳐 객장 규모를 2배로 늘리기까지 했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좌석제까지 시범 도입하면서 자칫 광주가 사행산업의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이달부터 5~9층에 지정좌석제 1946석

을 확충, 영업에 들어갔다. 기존 입장료 800원 대신 1만원을 내는 지정좌석에 앉으면 경마 예정지와 식·음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점은 2~4층 3090석에, 5~9층을 지정좌석제 1946석을 확보해 모두 5036석을 확보하게 됐다.

13일 리모델링 후 첫 주말에는 일일 평균 방문객보다 200여명 늘어나 시설확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스크린 경마장의 매출액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자 한국마사회에서 170억원을 신규 투자해 수익성을 더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마

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09년 2248억원에서 2010년에는 242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630억원을 넘어섰다.

이와관련 한국마사회 측은 “이번 시설 확충은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며 “방문객의 접충면적을 늘리는 것이어서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크린 경마장의 시설확충과 공격적 경영방식에 시민들은 가뜰

한편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은 지난해 경기불황의 어려운 환경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태를 부추기고 사행성 산업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

리를 내고 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레저세라는 허울좋은 사탕발림에 지역을 유치하려고 암묵적 묵인 속에 사행성 산업을 권장하고 있다”며 “투기성과 도박성을 가진 사행성 사업의 특성상 제2의 피해자를 낳기 마련인데 업체에게 사업확장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은 지난해 광주시와 동구에 130여억원의 레저세를 납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의 등불 점화식

‘2012 적십자사 사랑의 등불 점화식’이 26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적십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회비를 김필식 광주전남지사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송당사자 의견 경청 잘해야 우수법관

윤성원 수석 부장판사 등 5명 뽑혀

광주지방법원 첫 평가

광주지법 윤성원 수석부장판사, 송희호·윤상도·김정숙 부장판사, 고상영 판사 등 5명이 광주지방법원 사회평가 ‘2011년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균형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당사자 및 변호인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판사들

은 증인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거나 변호인 변론을 제한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6일 오전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고법·지법 및 산하 지원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 분석은 광주지법법장을 지낸 전도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15명과 전남대 로스쿨, 조선대 법대 교수 1명씩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법관 평가특별위원회가 맡았다. 변호사 회

원 245명(미활동 포함) 가운데 23명이 149건의 법관평가표를 제출했다.

이 결과 따르면 광주지법 윤성원 수석부장판사 등 5명은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공정 ▲취위 및 친절 ▲직무 능력 등 3개 부문 10개 문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이들을 포함해 모두 58명의 법관이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우수 친절법관으로 추천됐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첫 평가인만큼 ‘미흡’ 평가를 받은 법관이나 구체적 사례는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추

후 가장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를 들었다.

강행욱 광주지방법원사회회 회장은 “법관 평가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는 법을 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평가 자체가 향후 사법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2년 평가부터는 참여 변호사를 대폭 늘리고 광주고법·지법 및 산하 지원 법관 전체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계량화하고 나쁜 재판 사례 등도 공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인 법관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d@

사그라진 금연 열풍

새해 마음먹고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뜻밖의 ‘악재’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담배를 끊기 위해 대신 사용하는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각종 니코틴 대체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다시 담배에 손을 대고 만다는 것.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 A(49)

호르몬인 DEP(디에틸프탈레이트)가 0.08~2.274.04mg/l. 15개 제품에서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0.30~99.49mg/l 농도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금연 패치나 껌 등 니코틴 대체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도 금연 의지를 사그라들게 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와 매사추세츠대

보조제 효과 없고 전자담배서 발암물질

유해성 알려지면서 흡연자들 잇단 포기

씨. 그는 지난 6개월간 전자담배를 애용하다 발암물질에 환경호르몬까지 검출됐다는 보도에 일반담배를 꺼내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지난

해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13개 회사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 121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ℓ 당 0.10~11.81mg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82개 제품에서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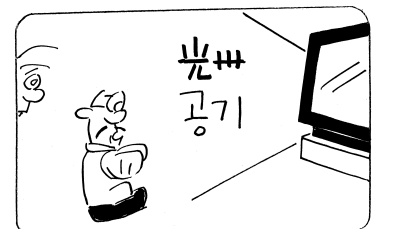
학교 연구진이 6년 동안 7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니코틴 패치를 써서 금연한

집단이나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금연 실패율이 30%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대체재에 의존하는 건 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사 전희정(29)씨는 “전자담배나 금연 약물은 보조제의 역할만 할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89) 김중두



김두우 전 흡수석 3년 구형

부산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140만원, 골프채 물품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수석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땅 시주했다” 청와대 직원 사칭 사기

○구례경찰은 26일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여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66·경남 진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례군 토지면의 한 민박집에서 “청와대 직원인데 정부 땅을 싸게 사준다”고 속여 조모(여·71)씨에게 15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70만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전곡을 돌려 청와대 직원이나 군 장성출신을 사칭하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적을 추궁.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집단폭행 10대 6명 선별 입건

경찰 출동지연 자체 감사

광주 동부경찰은 26일 대남 구도심 건물 옥상에서 10대 1명을 무차별 구타(광주일보 25일 1·6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7)군 등 6명에 대해 폭행 여부를 가려 입건할 방침이다.

김군 등은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쇼핑몰 옥상에서 시내 등지에서 만나 친구가 된 중학생 손모(17)군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혔다며 손군과 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군이 예전에 반지를 훔쳤다는 사실로 다시 시비가 이어져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집단 폭행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김군 등 최소 5명은 손군을 상대로 여학생 3명을 포함해 모두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30여분간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학생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가해자 검거 과정에서 불거진 출동 지연 논란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폭력 신고자

경찰, 익명처리

앞으로 학교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가명으로 처리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최소 2명 이상 신규 배치되는 등 경찰의 대응

이 한층 강화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신고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졸업시기
고등교과목 전과목(약 16과목)		준비과목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2월1일